혈액 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 환자의 생존 분석

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한민내과 대전*, 새서울내과 대전**

김성숙,김종섭,황평주,김종학,나기량,오선미,빈기태,이강욱,한민희*,이기상**,신영태

목적: 혈액 투석은 현재 국내 신부전증 치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. 따라서 투석 환자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를 교정함으로써 생존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보고가 적은 편이다. 본 연구는 충남대학병원에서 처음 혈액 투석을 시작한 환자를 대상으로 생존율, 사망원인,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신부전 환자의 관리 대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: 조사 대상은 1986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10년 6개월동안 충남대학 병원에서 처음 혈액 투석을 시작하여 충남대학병원 및 주변 병원에서 혈액 투석을 3개월이상 시행받은 총 293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.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원인 질환, 동반 질환, 연령, 혈액 화학적 검사 결과(평균)을 조사하였고 사망 원인을 분석하였다.

결과: 만성 신부전의 원인 질환은 원인미상(32.4%), 당뇨병(29.7%), 만성 사구체신염(16.4%), 고혈압(15.0%), 다낭성신증(3.4%), 비뇨기 질환(3.1%)순이었다. 신부전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8.4년이었으며, 조사 기간중 사망한 환자는 총 67명(23%)이었고, 사망 원인은 원인미상(34%), 뇌혈관 질환(20%), 심혈관 질환(8.2%)순이었고,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는 만성신부전의 원인중 당뇨병군이 만성사구체 신염군보다 상대적위험도 2.40 (p=0.022)이며, 비당뇨병군보다는 1.94 (p=0.010)이었다. 혈액투석 시작시 연령은 50-69세군이 29세이하의 군보다 상대적 위험도가 5.14 (p=0.005)이었다. 혈액학적 검사상 Na+<135mEq/L군은 135≤ Na+<145mEq/L군보다 상대적위험도가 3.51(p=0.023)이며, 혈색소 < 7.0 g/dl군이 혈색소 >9.0 g/dl군보다 상대적 위험도가 2.12(p=0.063)이었다. 저알부민 혈증군(<3.0g/dl)은 알부민>4.0g/dl군보다 상대위험도가 1.75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.

결론: 이상의 결과로 신부전 환자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투석 시작시 고연령, 원인 질환중 당뇨병의 유무, 저나트륨 혈증, 심한 빈혈이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, 교정 가능한 변수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로 생존율을 향상 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.